



그때 그랬지

100세를 바라보는 이들의 추억 이야기



홍복순 1930년생(91세)



친구 사이

20대 중반쯤 피난 갔다 돌아와 9.28 서울 수복 이후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,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 '덕수궁에서 만나자' 하고 모였을 때 찍었던 사진이다. 마치 짠 것처럼 모두 바바리코트를 입고 덕수궁 앞에서 만났다. 만나자마자 서로 안부를 묻고 부둥켜안았던 게 기억이 난다.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 사이.

부부동반 여행

내 나이 45살 때,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부부동반 모임으로 설악산 여행을 갔다.

여름 산을 오르니 바다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받았고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. 나름 멋내고 간 여행이다.



단풍 구경

40대 중반쯤, 남편이 암 수술을 받고 시한부 1년 판정을 받게 되었다.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하며 여행을 다녔었다. 이 사진은 청명한 가을날 내장산에 올라 단풍 구경을 하며 찍은 것이다. 그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즐거웠다.



이금복 1928년생(93세)



멋쟁이 신사

전쟁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고 18살이 돼서 드디어 한국으로 들어와 고향인 거창에서 지냈다. 20대 때 양복을 멋지게 빼입고 찍은 사진이다. 세월이 화살같이 흘러 벌써 70년도 더 지났다. 지금 봐도 인물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.

딸, 아들과 함께

51살 때 집 앞에서 딸,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.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빨리 아이를 낳던 시절이었는데 그에 비해 40살에 첫 딸을 낳았으니 많이 늦은 편이었다.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과 아들이다.



제주도에서

70대 어느 가을의 화창한 날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. 날씨도 좋고 표정도 잘 나와 마음에 드는 사진이다. 여행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볼 때마다 행복하다.

